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1호

발행인 김연국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9월 1일

9월 4일 0시부 총파업 돌입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업될 것”



93.2% 역대 최고 찬성률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예상된 결과였다. 찬성률은 압도적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지난 8월 24일부터 엿새간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서울 포함 전국 18개 지부 조합원 1758명 가운데, 1682명이 투표해 95.7%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1568명으로, 찬성률도 93%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의 85.4%, 170일간 이어졌던 2012년 파업의 69% 찬성률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회사 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발표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거론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설립 3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업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그만큼 지난 5년간의 길고 암울했던 MBC 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컸고, 김장겸 사장 체제를 끝내고 바닥까지 추락한 MBC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현재 MBC의 상황이, 방송을 멈춰 세우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화살은 이제 시위를 떠났다. 김연국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에 알리며 “9월 4일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역사상 가장 강고한 파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은 송출 등 방송필수 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기로 한 만큼 방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의 결과는 93%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정말 회사를 위한다면 총파업 돌입 전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 총파업 지침 >

2017. 8. 30.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9월 4일 00시부터 파업 대상을 전 조합원으로 확대한다.
- 전 조합원은 파업기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파업 확대와 함께 국내출장자, 휴가자(출산휴가 제외)는 전원 회사로 복귀해 파업에 동참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연국



서울지부
출정식

일시: 4일 오전 10시
장소: 상암사옥 로비

궁지에 몰린 김장겸 일당, 사퇴만이 답이다



“끌려나가 짓밟히더라도 생물학적 생명만
붙어 있으면 부정한 저들에 맞설 것입니다”

오정환 보도본부장이 8월 13일 보도국 간부들에게 보낸 글 속의 한 문장이다. 싸우자고 알렸더니 졌지만 죽을 때까지 버티겠다는 답이 돌아온 것이다. 김장겸 사장도 지난달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막후의 실력자였던 그가 이제는 직접 내부 단속을 해야 하는 지경에 몰린 것이다.

2012년 파업에 비하면 회사의 대응은 무력하다. 2012년에는 성과금 잔치를 벌였고 파업 대체 인력을 뽑아 자신들의 결속력도 과시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대체 인력을 뽑으려는 시도는 이미 좌절됐다. 심지어 공손하기까지 하다.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존경하는 사원 여러분’ ‘언론노조 MBC본부에게도 호소합니다’ ‘사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등의 극진한 표현을 썼다.

태도가 누그러졌다고 야비함이 사라진 건 아니다. 김장겸 퇴진 운동의 선봉장 김민식 PD에게 장고 끝에 출근 정지 20일이라는 징계를 내린 사측은 제작 거부로 동참한 시사매거진 2580 작가 전원을 권고사직 형태로 잘랐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해진 PD는 역풍이 무서워 제대로 징계도 못하면서 가장 약한 파견직 사원들의 생계수단을 끊어버린 것이다.

돈으로 부역을 사겠다는 사측

돈 줄 테니 계속 내 편이 돼달라며 노골적인 회유도 하고 있다. 문호철 보도국장은 지난달 23일 회사방침이라며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업무수행자에 대한 성과 보상을 최대한 조속히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잊지 않고 곁맞은 조치를 취한다’ ‘방송법과 상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성과 보상이 꽤나 두둑할 것이라는 유혹을 대놓고 하는 것이다. 절박함에 나온 궁여지책이었지만 효과는 없어 보인다. 보직자들의 사퇴, 경력사원들의 노조 가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성의 대가로 더 달콤한 특과원, 연수, 임원, 보직을 던져줘 왔는데 이제 와서 성과 보상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 문재인 탓?

김장겸 일당은 이번 파업을 ‘정치권력이 주

도하는 파업’으로 규정했다. ‘정치 권력의 부추김에 고무된 거대 언론 노조 MBC 본부가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행위’라고 설명했다. 노조와 민주당이 한 패라는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번 파업의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언론적폐 청산이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의 교체입니까?’라고 물었다.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변지수도 잘못 짚었다. 김장겸 일당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건 깨어난 시민과 MBC의 구성원들이다. 정권에 탄압받는 언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너무 뻔한 전략이다.

김장겸은 “파업 기간도 지난 170일 간의 파업 때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끊임없이 파업 불참과 업무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앞의 말은 허세로 보이지만, 뒤의 말은 진심인 것 같다. 여러 차례 ‘정상 방송은 국민의 책무’라며 조합원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해법은 단 하나뿐이다. 총파업이 예고된 9월 4일 0시 전에 김장겸 사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이 조건 없이 사퇴하는 것이다. 김장겸과 경영진이 퇴진한다면 노동조합은 총파업 돌입을 유보하고 방송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러 사람 고생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MBC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김장겸 사장 단 한사람의 결단뿐이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보직 사퇴 가속화 보직자 159명 가운데 67명 사퇴

“입사 동기인 김민식 피디를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PD수첩 팀장이기 전에 한 명의 피디이고 인간입니다. 이제 부터는 제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 PD수첩 팀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장형원 7월 24일

정확히 40일 전 ‘한 명’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제대로 된 <PD수첩>을 만들기 위해 지금은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후배 PD들과 뜻을 함께 했다. 불과 한 달하고 열흘 전, 이때만 해도 MBC에서 자리를 내놓은 보직간부는 단 ‘한 명’이었다.

하지만, 40일이 지난 지금, 김장겸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자리를 내건 보직자는 ‘67명’이다. 전체 보직자 159명의 42%에 해당하는 보직자들이 더 이상 몰락하는 MBC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후배들의 절규에 화답한 것이다.

57명 보직자 집단 성명, “경영진 결단 요구한다”

파업 확대 투표 마감 이틀날 무려 57명의 보직자들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사퇴하며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라”고 자신의 직책명과 이름을 내 걸었다.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업이라는 상황이 닥친다면 보직사퇴를 통해 경영진의 결단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그래도 MBC는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방어해 왔다. 기회주의자라는 안팎의 비난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보직을 내던지고 나선 이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85사번, 연차로 따지면 34년차, 말 그대로 MBC와 인생을 함께 해 온 왕고참에서부터, 2012년 이후 경력직으로 MBC에 들어와 새롭게 삶을 꾸리는 신참 보직자들까지 아우르고 있다. 국장으로는 유일하게 드라마 본부의 최원석 드라마 기획국장도 보직을 던졌다.

예능본부에선 보직 국장을 제외한 예능PD 보직자 전원이 참여했고, 라디오국 역시 실제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인 4명의 부장 전원이 자리를 내놓았다. 제작부서 뿐만 아니라 방송 편성을 책임지는 TV편성부장, MBC 전과의 마지막 관문 주조정실을 지키는 TV송출부장,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MBC의 돈줄 광고영업부장까지 기술, 경영 부문의 핵심 보직부장들도 자리를 내걸었다. 심지어 총무부장도 사퇴 결의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회사 MBC의 주주총회를 담당하고, 사장과 임원의 의견, 차량, 안전을 맡는 사실상 사장의 손발마져 김장겸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자리와 이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와 이름을 걸었지만, 조롱거리가 된 자리와 이름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이름만 남은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사실 수백 명이 일손을 내려놓을 필요도, 67명이 소중한 자리와 이름을 걸 필요도 없다. 안전요원들에 둘러싸여 밀실 엘리베이터로 숨어 다니는 처지이면서도 임원 의자의 안락함에 도취된 당사자들만이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다. 보직을 진정 내려놓아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다” MBC 사태엔 “책임질 일 없다”

지난 2013년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장에서도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어제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고 이사장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 온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MBC사태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다. 고 이사장은 MBC에서 자행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부 조작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범법행위는 하나도 없고, 모두 조작이라서 책임질 일도 없다”며 잡아땀다. 도리어 최근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강요죄를 운운하며



기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또, 법원 앞에 나온 일부 지지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먹살을 잡는 소동도 벌어졌다. 명예훼손 관련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MBC 라디오 50년 역사상 초유의 방송 파행

“제작 자율성 침해 심각” 라디오 PD 40여명 제작 거부

‘역사와 전통’ MBC 라디오의 결방이 이어지고 있다. 라디오PD 40명이 지난달 28일 오전 5시를 기해 제작 거부에 들어가면서 <세상을 여는 아침 이재은입니다> <굿모닝 FM 노홍철입니다> 등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파행됐다. 정채불명의 ‘꿈의 팝송’, ‘힐링 뮤직’ 등 음악방송으로 대체됐다. 48년간 이어져 온 <별이 빛나는 밤에>, 2012년 170일 파업 때도 방송을 멈추지 않았던 <배철수의 음악캠프>도 진행자 없이 음악만 나갔다. 50년 넘는 MBC 라디오 역사상 처음 있는 사태다. 당황한 사측은 일부 프로그램에 보직자들을 투입해 진행을 시도했지만, 작가와 PD, 진행인력이 모두 자리를 비운 현재 상황에서 파행 방송은 불가피했다.

방송 파행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매일 원고를 다듬고 방송을 진행하던 제작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PD들이 제작 거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라디오국

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40명의 라디오 PD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이뤄져 온 상시적인 아이템 검열과 제작 개입을 폭로했다. PD들은 “시사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걸쳐 ‘세월호’와 ‘위안부’는 금기였다”고 털어놨다.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을 언급하면 생방송 중 PD가 국장실로 불려갔고, 제작 자율성은 침해당했다. PD들은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제작진에게 수시로 연絡해 아이템과 인터뷰이를 강요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PD에게는 진행자 선정의 자율성도, 아이템 선택의 자유도, 때론 선곡의 자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매일 같이 MBC라디오와 함께 했던 청취자들은 갑작스런 결방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union을 아끼지 않았다. “지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파업 후 새로운 MBC를 보고싶다”는 글 수십건이 프로그램 게시판을 채웠고, “좋은

세상이 와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정한 언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참고 기다리겠습니다”는 응원메시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본부 60명도 파업 결의... “방송 사유화 심각”

경영진의 ‘부당개입’은 드라마본부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30일 드라마 본부 조합원 60명은 파업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안광환·김장겸 사장 체제하에서 MBC드라마는 사익을 위해 정윤희의 아들 정우식을 출연시키는 개인방송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끝까지 싸워 현 경영진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방송을 사유화한 경영진들의 전횡이 제작 일선에서 땀 흘리던 드라마 본부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심을 키운 것이다.

공범자들의 자축 파티 ‘블랙리스트’ 신동호가 유공자?

오늘 저녁 63빌딩에서 제 54회 방송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 등 공영방송 추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다. 취임 이후 첫 행보로 MBC 이용마 기자를 만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보여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자리에서 만날 예정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첫 행사로, 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방송진흥유공포상’ 수여식이 함께 열린다. 2012년 MBC과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노골적으로 업무에서 배제·격리한 인물로 꼽히는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이 한국방송협회 회장 표창수 상자로 선정됐다. 파업 이후 12명의 아나운

서가 회사를 떠나고 11명이 부당 전보될 정도로 아나운서 조직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방송진흥’에 공이 있다며 상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신 국장을 포상에 추천한 방송협회의 현 회장은 바로 KBS 고대영 사장이다.

행사장인 63빌딩 밖에서는 저녁 6시 반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불금파티’가 진행된다. ‘돌아오라 마봉춘(MBC), 고봉순(KBS)’ 일명 ‘돌마고’ 문화제로, 벌써 7번째 행사다. 오늘 방송의 날 기념식은 공영방송 파괴의 ‘공범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200여 개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파업 돌입을 앞둔 MBC·KBS 조합원들의 ‘돌마고’ 문화제의 참여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일곱 번째 **불금파티**

KBS와 MBC를 되찾아오는 보람찬 데모, 아니 파티

9.1. (금) 18:30

여의도 63빌딩 앞

가수 **손병희**, KBS 대금패 **‘드림’** 그리고 **YTN 복직기자들**

초대 손님

안내 ‘공범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방송의 날’ 기념식에 모이는 KBS 고대영·MBC 김장겸, 적폐사장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니다. www.dolmago.com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유배지 폐쇄’ 선언...동료들이 돌아왔다

유배자 32명, 업무 거부 대열에 합류



구로, 여의도, 경인지사 등 ‘유배지’에 쫓겨나 있던 조합원 32명이 ‘유배지 폐쇄’를 선언하고 상암동에 돌아왔다. 유배지로 떠났던 사람도, 유배지로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도,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순간이었다.

30일 오전 상암동 MBC본사 로비에서 열린 집회에는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했다. 유배지로 쫓겨난 동료들의 영상과 함께 집회는 숙연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무기력했던 지난날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여러 조합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유배지로 쫓겨났던 동료들이 무대에 등장한 순간, 조합원들은 1분 넘는 길고 뜨거운 박수로 돌아온 이들을 맞이했다.

사랑하던 존경하던 선·후배, 동료들은 견뎌온 고통을 담담하게 전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주인공은 신사업개발센터로 쫓겨나 2년 10개월 만에 상암동에 온 정형일 조합원(87년 입사)이었다. 그는 “처음엔 동병상련을 느끼는 동료들과 함께 지내 힘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고문이라고 느꼈다.”고 유배지 생활을 되돌아봤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회사를 떠난 사람은 동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는 사측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발언을 이어간 이근행 조합원(91년 입사)은 지난 3년 동안 감정이 메말랐다고 말했지만, 미리 준비해온 글을 읽는 내내 터져 나오는 눈물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 역시 “유배된 사람들은 상처입고 불행해진 인생이었다.”고 평가했다. 해직된 뒤 호봉도 근속 연수도 포기하고 굴욕적인 특별채용 형식으로 회사에 돌아왔을 때 “저들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돌아가자는 생각이었다.”며 복직 당시를 떠올렸다.

유배자들은 함께 뭉쳐 총파업에서 승리하자



이근행 PD

“저들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의 주인공입니다”



김민욱기자

는 메시지도 전했다.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김민욱 조합원(08년 입사)은 “나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가 지난 5년간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며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해직자도 유배자도 징계자도 아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다. 주인공들이 웃을 수 있는 결말을 함께 맞이하자”고 마무리했다.

유배지에 있던 조합원들은 29일 스스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유배지를 폐쇄했고, 30일부터 업무 거부 대열에 동참했다. 이제는 상암동 본사로 돌아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회사는 기자, PD, 아나운서 등 157명을 원래 업무와 상관없는 유배지로 보냈으며, 그 때마다 능력과 필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라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조합에서는 그동안 부당전보 취소 가치분 소송, 전보 발령 무효 소송 등으로 대응해 90% 가까이 승소했지만, 회사는 끊임없이 유배지로 인사발령을 내왔다.

한편, 총파업을 앞둔 이번 집회에는 해직자 최승호, 박성제, 박성호 조합원도 참여해 힘을

보냈다. 박성호 조합원은 이번 총파업이 시민에게 진 빚을 갚는 작업이자 MBC 부활의 작업이라고 밝혔고, 박성제 조합원은 김장겸 사장 등이 문제인 정권에게 탄압받는 정치범인양 행동하지만 노동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잡범들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인 최승호 조합원은 우리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시민들이 성원해줄 것이고, 새로운 MBC로 태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연국 노조위원장은 유배지로 쫓겨난 동료, 해직된 동료들에게 빛을 갚는 길은 결국 하나가 되어 총파업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7사변과 08사변, 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의 정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조합원이다. 9월 4일부터 우리는 하나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우리가 되자.”며 총파업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유배자와 해직자까지 참석하며 1시간 넘게 뜨겁게 이어진 이번 집회는 전 조합원이 힘찬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전 조합원 똘똘 뭉쳐 MBC를 되살리자!” “김장겸을 몰아내고 MBC를 재건하자!”

‘지역MBC 망친 낙하산’도 떠나라!

총과업의 깃발이 올랐다. 5년 만이다. 공정방송을 쟁취하고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싸움이다. 고영주, 김장겸의 퇴진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의 조건이다. 그러나 MBC안의 인적 적폐청산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역MBC의 ‘낙하산 사장’들이 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며 지역MBC 구성원을 탄압하고 지역MBC를 망친 인물들이다. 이미 싸움은 오래전 시작됐다. 춘천지부와 대전지부가 치열한 투쟁의 앞에서 있다. 춘천 송재우 사장 퇴출을 위한 춘천 조합원들의 투쟁은 130일을 넘겼고, 이진숙 사장을 내보내기 위한 대전 조합원들의 굳건한 대열 역시 120일 쯤 한 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기행 일삼는 송재우



춘천MBC 송재우사장

춘천 송재우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사관계의 회복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지부장을 비난한 뒤 억지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쏟아냈다. 공영방송 지역사 사장이 내뱉은 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원색적인 비난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최현영 춘천 지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표적 징계를 결정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춘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4월 21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송재우 사장 퇴진 운동에 나섰다. 무능함과 유치함의 대명사가 된 송재우 사장은 이른바 ‘메롱’ 사건에 이어 퇴진을 외치는 조합원들과 ‘달리기 레이스’를 펼치는 기이함까지 보여줬다. 송사장의 기행은 지역 사회의 여론을 들끓게 했고,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으며 형사입건을 앞두고 있다.



김재철 ‘아바타’ 이진숙 퇴진 투쟁 확산

대전지부의 투쟁은 지난 4월 11일 정기노사협의회가 발단이 됐다. 대전MBC 보도국장장과 취재부장은 노사협의회 직후 조합 집행부와 지부장을 향해 고성과 막말을 내뱉었다. 이진숙 사장은 조합원을 가차 없이 징계했다. 대전MBC 기자회견 등 적능 단체들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무시했다. 조합은 지역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이진숙 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 6월 29일엔 창사 이래 최초로 보도민실위보고서를 발간해 이진숙 사장의 공영성 훼손과 방송사유화에 대해 고발했다. 그 결과 이진숙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며 대전MBC 뉴스를 망친 최혁재 보도국장장이 지역 방송사에선 유일하게 언론노조 선정 3차 무역자명단에 포함됐다.



대전MBC 이진숙사장

춘천과 대전, 두 지부의 싸움은 지난 9년 간 지역MBC에서 벌어진 오욕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김재철, 김종국, 안광한, 김장겸 체제가 정권의 주구 역할을 하며 공영방송 MBC를 망가트렸다면 지역사의 낙하산 사장들은 서울 사장들의 ‘아바타’를 자처하며 지역MBC를 철저히 파괴했다. 노동조합 탄압, 특별상여 미지급 소송, 불공정한 광고배분 구조 외면, 전국MBC 단일 임금 체계 파괴 등 악랄하고 저열했던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특별상여와 무더기 중임 등 자신들의 잇속은 챙기면서 직원들의 주머니를 터는 가장 천박한 경영 방식으로 일관했고 지역성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공영방송 MBC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탄탄한 네트워크다. 지역성과 자율성을 갖춘 지역MBC다. 시청자가 아닌 서울 사장의 입만 바라보고 꿈무늬만 따라다니는 낙하산 사장들이 단 한 순간도 고민하지 않을 것들이다. 함량 미달의 낙하산 사장들이 점령군 역할을 할 때 지역MBC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들이여, 지역MBC 분탕질에 그대들의 공이 이미 높았으니 죽한 줄 아신다면 원컨대 이제 물러나시라.

